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대학은 수빅 산쪽에 위치하며 올라가포에 위치한다. 당연히 산쪽이라 별레도 많고 하지만 와이파이나 연결 상태는 매우 좋았고 분위기 자체도 수업하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대학이 있는 곳에서 수도관 쪽에 문제가 생겨 수빅홀리데이빌라라는 호텔에서 2주동안 수업했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시내쪽에 위치해서 근처에도 스타벅스도 걸어서 갈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수업시설이 전에 학교에 비해 많이 떨어져 집중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신경써주셔서 공부하는데 집중은 할 수 있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내용은 영어로 진행되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있게 물어봐도 될정도로 1:1 클래스는 정말 좋다.. 그룹클래스는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는데 저희 선생님은 너무 좋아서 몰라도 계속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좋았다 그리고 mmc는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되고 늦지만 않으면 됩니다 수업자체가 지루하지않고 재밌고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나중에 되면 알아들을수 있을 정도는 된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엑티비티는 많은걸 합니다 평일 엑티비티와 토요일 엑티비티가 있는데 평일은 하루 날을 잡아서 오전은 수업을 하고 오후에 엑티비티를 하는 방식이고 토요일은 하루 전체가 엑티비티 하는 날입니다 평일 엑티비티는 딱히 준비물은 필요없고 재밌습니다 선생님들과도 같이 게임을 하기때문에 더 즐길 수 있고 토요일은 산도 타고 수영장도 가고 요트투어를 했습니다 일단 토시나 긴팔은 필수이고 선크림이랑 우산 진짜 필수품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물건들이고 평상시에도 필요한 물건입니다 약간의 돈이 나가긴 하는데 크지는 않아서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현지기후는 처음에는 덥고 습하지만 점점갈수록 적응되고 갑자기 피가 폭우가 내리고 번개가 칠수도 있으니 우산은 필수입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수빅자체는 안전합니다 길다니다 보면 돈달라고 붙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첫번째기숙사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별레가많은것만 빼면 너무나도 좋은 숙소 시설이 너무 나쁘지도 않은 하지만 와이파이가 너무 잘되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별레가 많기때문에 수빅가자마자 바퀴벌레약부터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p> <p>두번째는 호텔이었으나 말만 호텔이고 와이파이 룸에서 하나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진짜 별레도 간간히 나옵니다 바퀴벌레... 그냥 첫번째 숙소가 그리워질 정도..</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은 학교식당을 이용했는데 한식위주입니다 진짜 그리워요 지금도.. 세프님이 너무 잘해서 맛있습니다. 외부식당은 괜찮은데는 괜찮고 한식당도 있어서 삼겹살이나 등등이 그리우면 사먹어도 괜찮습니다</p>
교통	<p>시내교통 관련</p> <p>택시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택시만 타세요 그리고 웬만한 큰 마트들 앞에는 택시가 다 있고 bar나 클럽같은데는 택시 불러달라고 하면 택시 불러줍니다 그리고 200페소 이상 내지 마세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저도 향신료 이런거 전혀못먹는데 필리핀 현지 음식을 먹기보다는 그냥 고기 위주로만 먹고왔지만 음식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트에 한국라면도 팔고 식당이 한국 음식위주여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우산이랑 선크림 슬리퍼 필수고 팔토시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굳이 110v 충전기를 필요 없고 옷은 적당히 챙겨오시면 거기서 또 사기때문에 적게도 많게도 챙겨오지 마시구 적당히 챙겨오시고 수영복 챙기세요!! 그리고 벌레가 많다는거 꼭 유의하시고 지사제 각종 약들 필수입니다 저는 물갈이랑 감기랑 같이 걸려서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은근 물갈이 많이하니까 꼭 지사제 챙겨오시고 물론 오피스에 약들이 많이있지만 비상약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발음을 배워온다는 생각은 버리고 즐기고 영어듣는게 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저도 어느순간부터 알아듣더라구요 그리고 꼭 중간에 영화개봉하면 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싸요 ^^ 그리고 긴팔 챙겨오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 캐리어 큰거 들고오세요 그리고 말린망고가 생각보다 싸지 않으니 주의하시고 그냥 과도를 거기서 사거 망고를 사서 찐라 먹는게 더 맛있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꽤나 만족스러웠고 영어를 듣는게 많이 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끝나면 선생님들과 카톡도 하는데 은근 영어가 써지고 많이 그립습니다 정이 안들것 같았지만 다 들어서 진짜 그리워요 아마 빠른시일내로 수빅을 한번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ㅎㅎ 한국와서도 계속 영어공부를 하고있고 그것이 더 도움이 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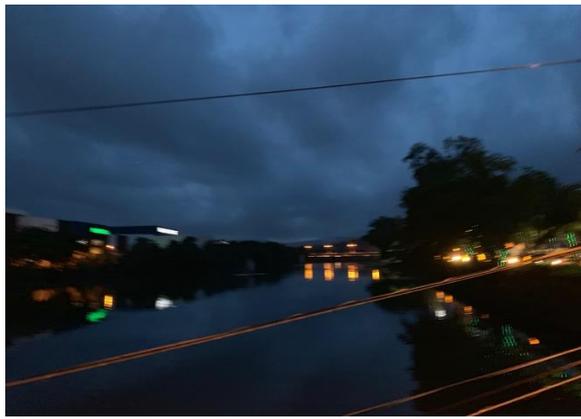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졸리비



Sm쇼핑몰



야경



산타올때



한식집중 하나



산에있는 탑